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25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25주일 ( 23. 9. 24.)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맨 먼저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스며 있는 지혜에 마음을 열게 하시어,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한 수고가 헤아릴 수 없는 영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이사야서 55,6-9 ):

6 만나 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7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럽이 용서하신다.

8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9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1,20c-24.27 ):

형제 여러분, 나는 20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21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22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편이 훨씬 낫습니다.

24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27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 복음( 마태복음 20,1-16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

셨다.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 화답송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 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으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포도밭인 교회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주님처럼,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국가의 일꾼인 공직자들을 살피 주시어, 법과 제도에 담긴 뜻을 올바로 새기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세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남아서 공동선에 함께할 가능성,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영위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며 이웃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 성가 ♪

- 입당 : 24(2절) (내맘의 천주여)
-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 : 182 (신묘하온 이 영적)/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 : 289 (병인 순교자 노래)

## 공지 사항

### ♣ 본당의 날 기념미사 및 행사 안내

- 일시 : 2023년 10월 01일
- 내용 : 1. 본당의 날 기념미사(추석합동위령미사 겸)  
2. 미사 중 전신자 필사본 성경 봉헌식  
3. 미사 후 친교 행사

### ♣ 구역모임

- 1구역 모임  
일시 : 9월 25일(월), 오전 9시  
장소 : 노베라스코 Cafe Silvia
- 2구역 모임  
일시 : 오늘(24일) 미사 후, 식사  
장소 : via vigevano 13(TAYAMA3)

### ♣ 봉사자

	오늘 주일( 24일)	다음 주일( 1일)
제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제2독서	구희선 스텔라	
복사	엄채윤 엘리사벳 강윤이 스텔라	
계단·화장실	변의용 베네딕토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64.10 • 교무금 € 600.00